

[H 갤러리]

JANUARY COLLECTION

1. 1. – 1. 31.

PHILIP. HAN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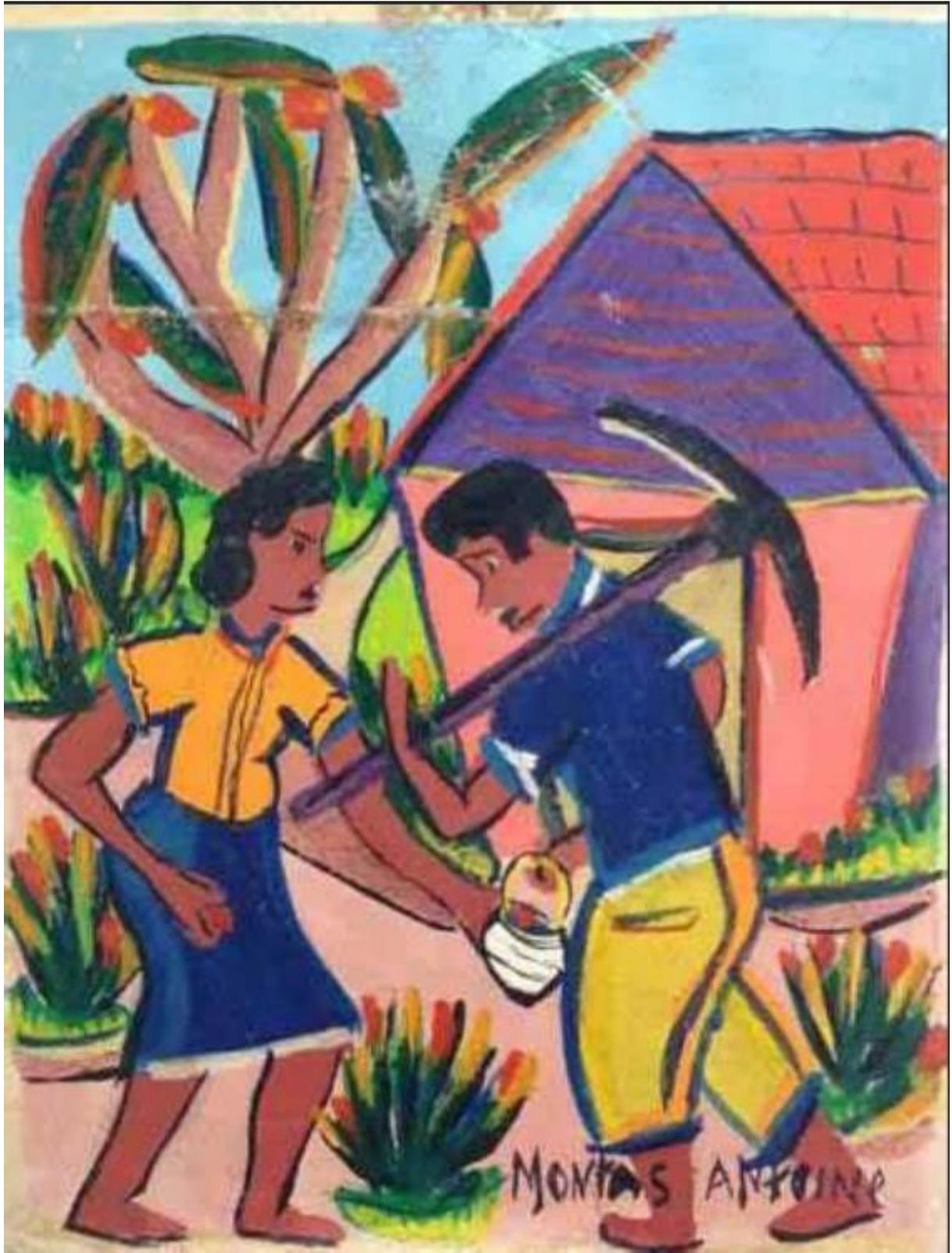
Montas Antoine(1926 - 1988, Haiti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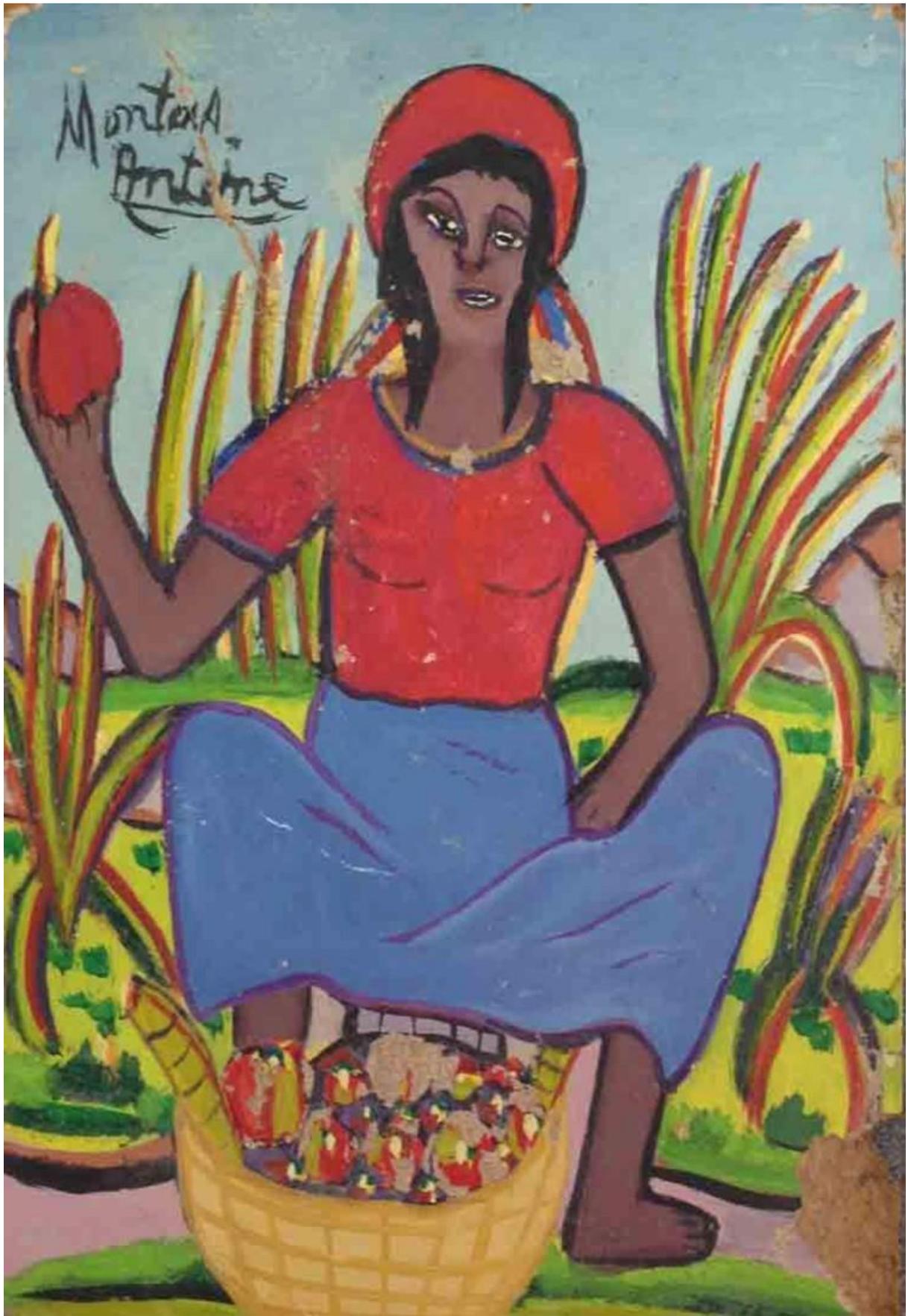
몬타스 안토인 Montas Antoine(1926 - 1988, Haiti)은 아이티 작가이다. 아이티는 동쪽은 도미니카 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, 서쪽 바다 건너는 쿠바이다. 남쪽으로 카리브해 북쪽으로는 대서양 연안의 인구 천백만의 나라이다. 1492년 콜럼버스가 히파니올라섬에 도착한 후 원주민 타이노 족과 아라와칸 족은 전염병으로 몰살당했다고 한다. 현재 인구 구성 99%를 차지하고 있는 흑인은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끌려온 노예의 후손이다. 당시 프랑스 국부의 1/4를 이곳 아이티에서 생산하는 커피와 설탕 판매 이익으로 채웠을 정도라는 기록도 남아 있다.

아이티는 카리브 해 연안 국가 중 가장 먼저 독립을 한 최초의 흑인 국가였다. 하지만 독립 이후 그들의 삶은 순탄치 않았고, 현재까지도 아이티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. 몬타스 안토인 역시 아이티 독립과 내전, 열강들의 쟁탈전 역사가 한창이던 1950년 대까지 군인이었다고 하니 화가로서는 드문 경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 있다. 1951년 어느 날 시찰 임무로 찾았던 아이티 아트센터 Centre d'Art 에 방문한 것이 아마 군복을 벗고 붓을 든 결정적 계기 같다.

몬타스 안토인이 남긴 작품은 야수파를 연상케 하는 색채감이 두드러진 풍경 일색이다. 망원경으로 보면 그렇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삶의 기록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. 한편으로는 열강과 정치는 남의 일인 양 몬타스 작품 속 아이티인의 모습은 평온하기 그지없다. 공동체가 살아 있고, 노동이 고되기도 할 텐데 그런 걱정은 갤러리 뒤편 작품 속 아이티인들은 일과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. 투우 경기도 펼치고, 배를 타고 유유자적 하는 모습도 곧잘 나타난다. 부두교 의식과 교회 활동이 공존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. 카리브해와 대서양이 빚어내는 빛의 조화를 만끽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작품이다.

한데 몇몇 작품을 보면 특이한 점이 있다. 무엇인가를 건네는 남자의 모습은 약간 당황한 듯하고 여자는 화난 표정이라는 점이다. 아니 새벽에 나가서 지금까지 이것 밖에 못했느냐고 타박하는 것 같다. 이 찡그린 여자 모습은 토마토를 파는 상인에서도 나타나고, 농장에서 일하는 몇몇 작품 속 중심에 서 있는 여인의 얼굴에서도 볼 수 있다. 이 화난 듯 혹은 찡그린 여인의 표정은 어떤 상징일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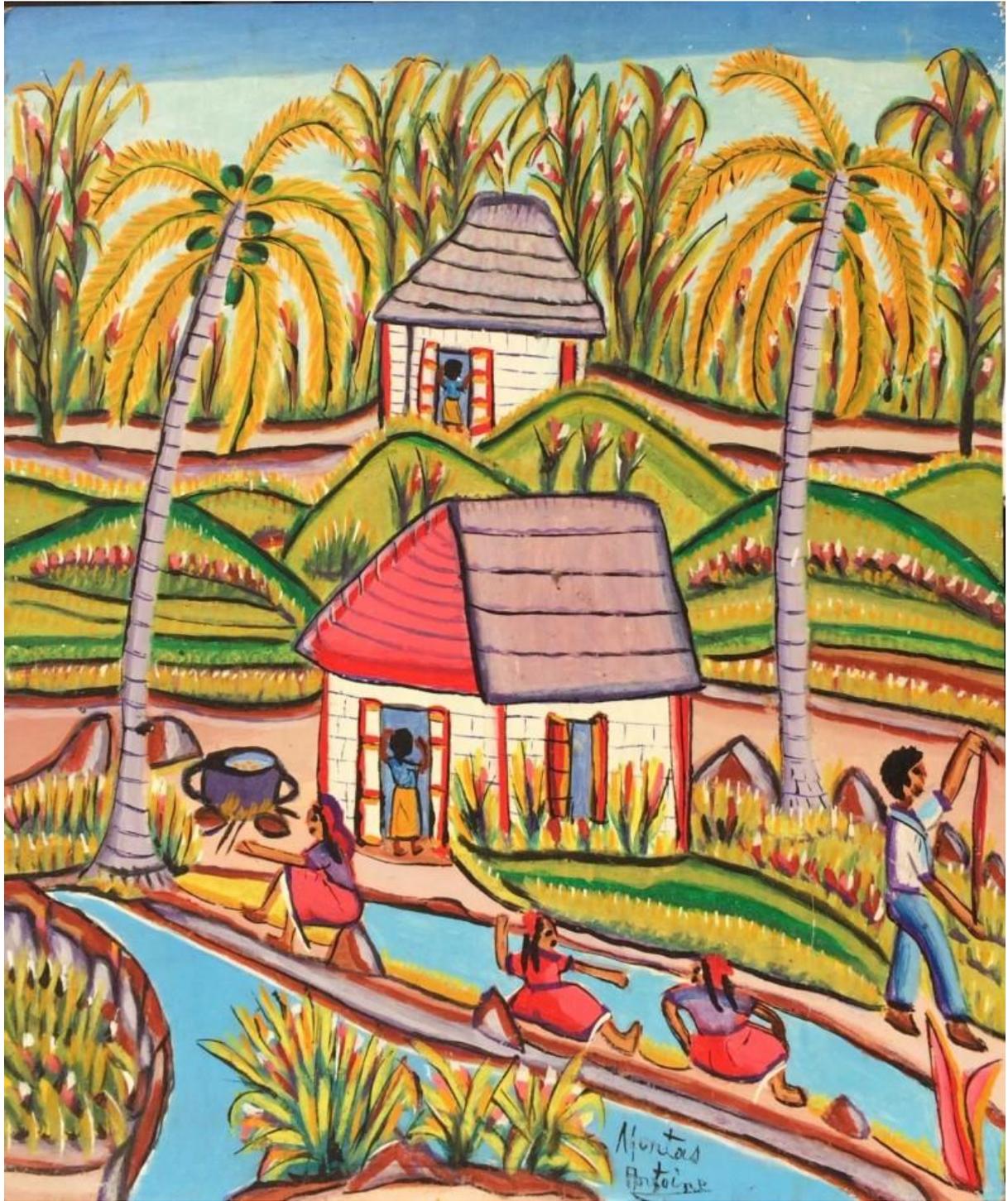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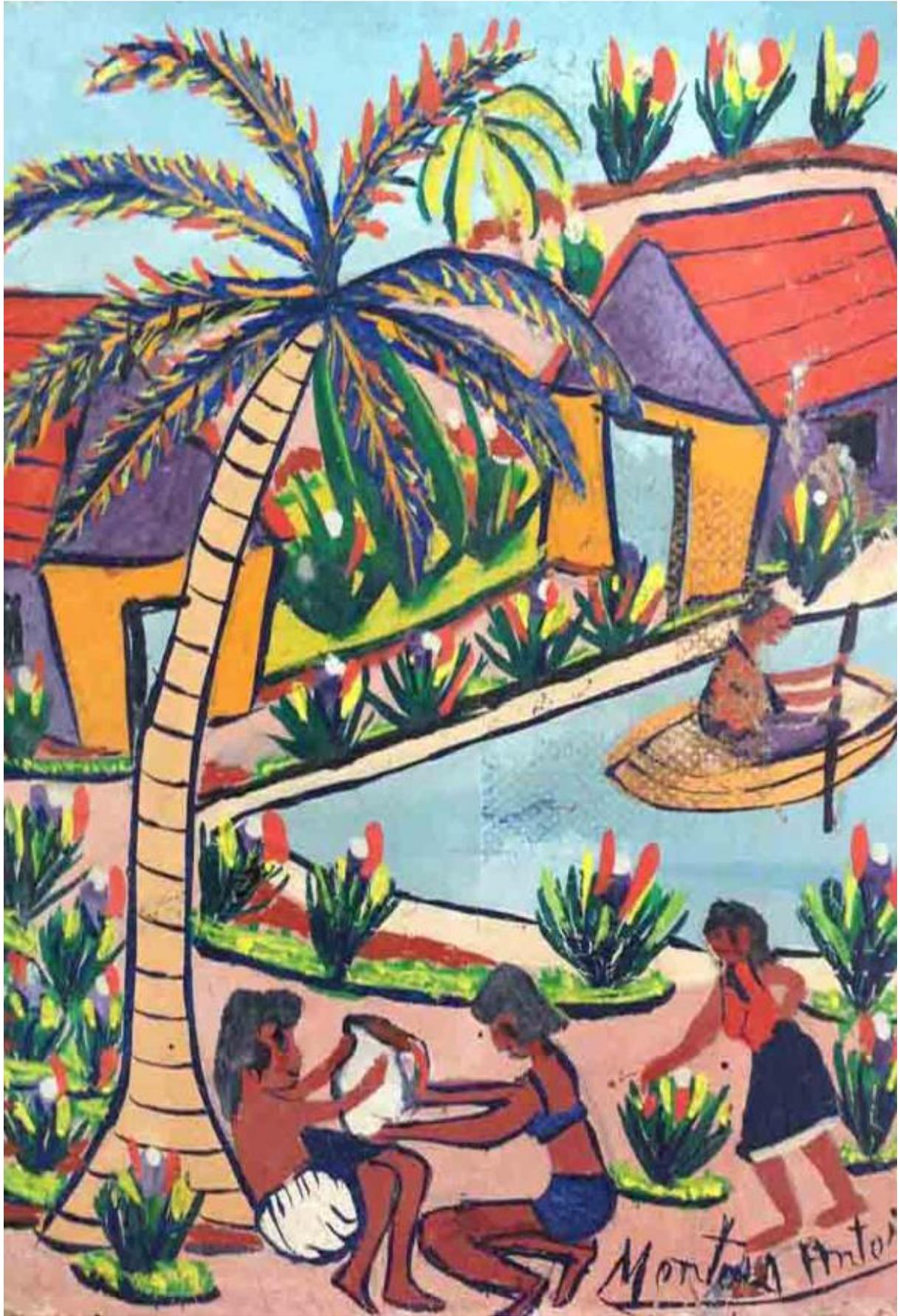


몬타인 작품 대부분은 농장을 배경으로 일하는 사람 다양한 모습을 주제로 그린 작품이 많아 보인다. 여러 편을 보면서 든 생각은 농장 외곽은 주로 남성이, 농장 또는 집 근처에는 여성이 일을 하는 모습이 특징적이라는 점이다. 마치 식민지 당시 농장에서 일하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듯 보인다. 왜냐하면, 중심에는 항상 일을 하지 않는 누군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. 그 누군가는 농장에서 일하는 남성과 여성과는 다른 옷을 입고 있어 신분이 다름을 쉽게 추론할 수 있다. 그들은 과연 누굴까. 농장주 아니면 상인, 선원 등 분명 외부인인 것만은 사실이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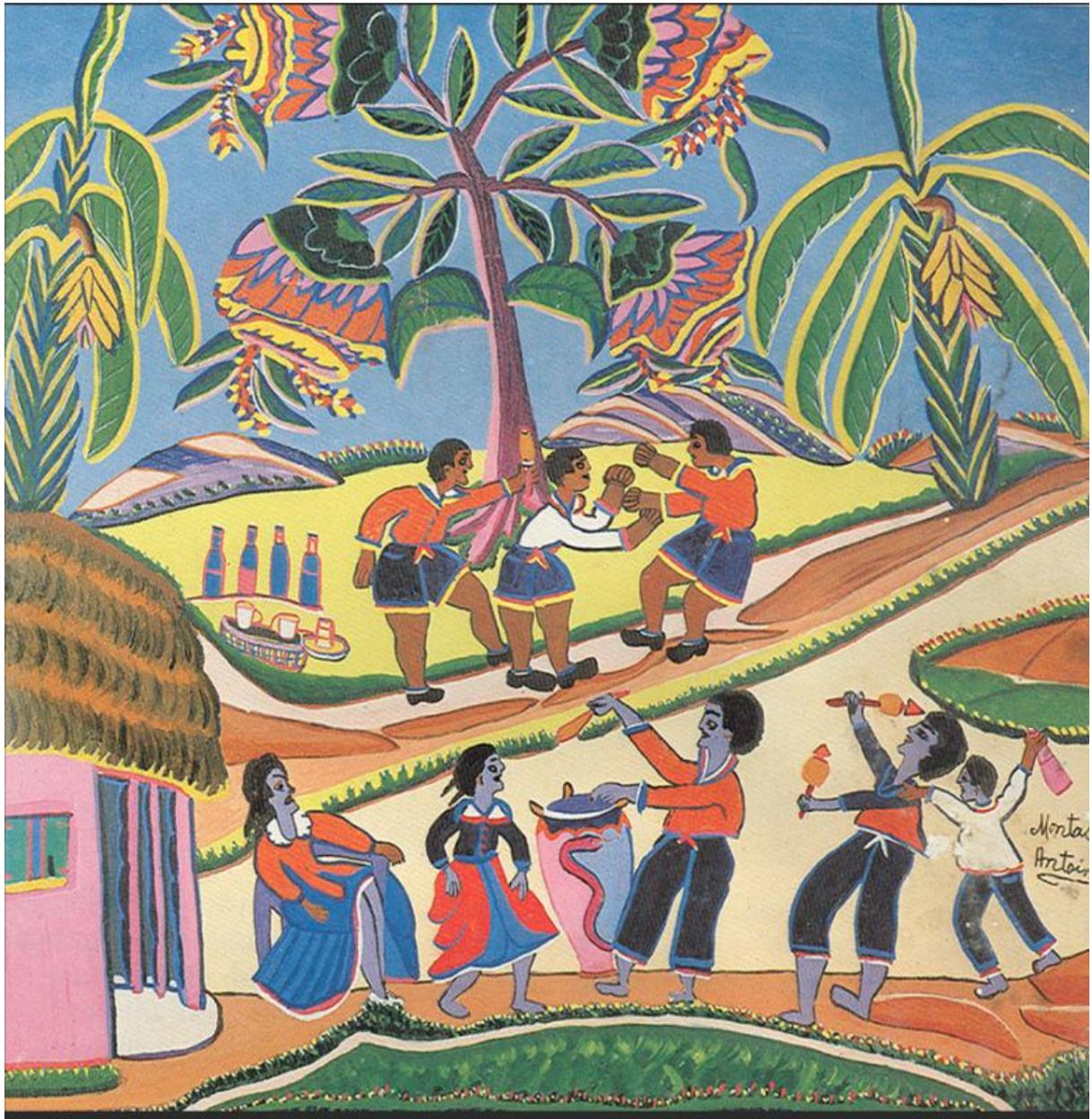








교회 활동



부두교 의식



Port-au-Prince, Haiti. 1955

몬타스 안토인 작품을 보면서 느낀 점은 두 가지다. 하나는 풍경화로 보면 이국적인 모습에 즐겁고 가볍다. 마치 킬링 타임용 로맨틱 코미디 한 편을 보고 있는 듯하다. 다른 하나는 아이티가 겪은 투쟁과 독립, 그로부터 발생한 복수 혈전을 방불케 하고 있는 권력 다툼, 파멸 직전에 이른 삶의 냉기 그 자체를 기록으로 남기려는 사명감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. 특히 포르토프랭스(Port-au-Prince, 1955) 작품 속 아이티 국기는 정식 국기가 아니다. 민간에서 쓰던 방식인데, 자료를 찾아보면 당시 민간에서는 '파랑-빨강' 두 줄에서 국장 문양이 없었다고 한다. 몬타인이 그린 저 가로 국기 형태와 비슷한 것은 1964년에 등장했고 그 국기는 세로였다.

Epilog

[H 갤러리] 2023 년을 작가 님과 함께 시작합니다. 올 한 해도 잘 부탁 드리고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 많이 짓고 성취하는 한 해를 함께 살아갔으면 하는 염원을 담아 봅니다.

고맙습니다.

2023. 2. 1. 수.



